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따뜻한 마음감사,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건설적 이야기 나누길 기대"

전남도, 순천대 글로벌대학 30 분지정 대응 총력

3대 특화분야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방안 논의

캠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속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통화를 마무리 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는 순천대학교의 '글로벌대학 30' 분지정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지원 전담반(T/F) 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특화분야인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와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대학 30'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천억 원씩 지원한다. 순천대는 지난 6월 말 전국 15개 예비 지정 대학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10개 내역을 선정하는 본 지정에 도

전하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대학 30' 분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전남도-순천대-산업계-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글로벌대학 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해, 매주 순천대, 관련 전문가 등과 만남을 갖고 실행 계획서 작성 방향, 지원계획 등을 구성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순천대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글로벌대학 30 분지정이 되도록 회의에서 제시된 특화분야 지원 대책을 실행계획서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오는 22일 순천대와 분야별 전문가, 도 관련 부서 실무진이 모여 3대 특화 분야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확대·범죄예방디자인 도입해 최대한 범죄 예방할 것"

18일(금), 관악산 등산로 범죄사건 현장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 위해 18일 오후 현장점검에 나섰다.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 시장은 14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문성로16다길 135)을 찾아,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사건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의 안내에 따라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건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범행 욕구 자체를 사전에 자제시킬 수 있도록 둘레길, 산책길에 강화된 범죄예방디자인(셀레드·CPTED)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형 CCTV를 되도록 많이 설치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적이 드문 일상 속 사각지대에 폭넓은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일련의 '묻지마 범죄'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예상 밖의 범죄에 대비해 예방책으로 특별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합동 점검 강화) 그간 서울시는 공원 내 안전조치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모든 시설공원에 대해 점검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동 점검 대상을 시내 모든 시설공원뿐만 아니라 등산로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감시장비 확대) 우범우려 지역, 주요 등산로(갯길, 갈림길)에 CCTV, 블랙박스를 경찰청과 연계해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계도 강화) 등산로 입구 등 현수막을 설치하며,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그룹산행을 권유한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2023년 국제관광도시 포럼' 개최

25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각계각층에서 2백여 명 참석, 올해 2회째 개최... '케이-푸드 미식관광활성화와 국제관광도시 부산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제 관광도시 부산 ▲미식관광도시 부산 ▲2030부산 세계박람회 ▲관광거점도시 상생과 협력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잇의 오너 셰프인 조셉 리저우드와 부산 미식 홍보대사 에드워드 권의 기조강연, 그리고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 전략 ▲2030세계박람회의 가치와 유치 추진현황 ▲관광 거점도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등이 있다. 이외에도, 2020년 공모 선정 이후 4년 차에 접어든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부산 관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오늘까지 2023 국제관광도시포럼 공식 누리집(http://www.2023itcf.com/registration)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내년 2월 미쉐린가이드 부산판 발간을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이 가진 미식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산만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며, "시는 부산이 한국 관광 미래를 견인하는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부산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국내외 관광전문가, 정부 부처 및 부산지역 관광업계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총 2백여 명이 참석해, '2023년 국제관광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관광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교류, 세계적 수준의 관광 유행(트렌드)을 확인하

고 부산 관광 가치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 형성의 장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으며,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주관한다. 포럼은 '케이-푸드(K-FOOD) 미식관광활성화와 국제관광도시 부산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조강연, 주제발표, 패널토론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천바위와 남이모,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달불이천도,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보전시간,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본재수시아생화전시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강철호 의원(동구1), "부산의 대형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 노력하겠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이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지방의회 광역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정치인이 수상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격려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자치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문별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아, 하혜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광역 지방의회 부문은 전국에서 단 8명의 시의원이 선정되었으며, 부산시에서는 강철호 의원이 유일하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세계 속 부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언으로 지

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강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메가 이벤트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부산의 세계화와 더불어, 타 시·도에 자치발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의 대형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목)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문승우 전북도의원, 군산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국립 군산대학교, 18일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국립 군산대학교는 18일 열린 제41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의원에게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문승우 도의원은 지난 2018년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현 제12대에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문화, 체육, 건설, 지역개발, 교통, 안전 분야에 대한 현안점검 및 정책제언을 이어오고 있다. 군산대 측은 그간 문승우 도의원이 지역현안에 적극적 관심과 열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했으며 지역주민에 대

한 봉사를 통해 지역통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선 도의원으로서는 활발한 의정경험을 통해 취득한 행정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원은 "이번 학위 수여를 통해 군산과 군산시민들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실 틈 없이 성실히 일해온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남출/기자



청송군의회,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와 간담회

권태준 의장, "청송발전과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청송군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청송군의회는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태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과 김현수 지사장 및 공사 직원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 시설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청송군 농업용수를 포함한 농업분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23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다목적 저수지 관리 방안 ▲배수로 개선 사업 등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안정적인 청송지역의 농업용지 공급 및 유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현수 지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송군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태준 의장은 "청송군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농업중심지로, 그에 따라 청송·영양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청송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중점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송군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 상라오市 대표단 '접견'

18일 송바우나 의장·현옥순 위원장 비롯한 의원들, 의회서 상라오市 대표단 만나 두 도시 간 협력 방안 논의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8일 시의회를 방문한 중국 장시성 상라오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송바우나 의장과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정실에서 구어펑 상라오시 부시장 등 상라오시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바우나 의장은 "중국 상라오시 대표단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상라오시와는 2017년과 2018년 세 차례 교류 실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교류의 물꼬를 트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라오시는 아시아 최대 광산을 비롯한 풍부한 자원과 중국 최대 광학렌즈 가공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도시이자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로서 앞으로 "안산시 또한 국가산업 단지를 품고 있는 제조업 기반 기업도시이면서 아름다운 섬과 많은 공원을 갖춘 생태 환경 도시이기에 유사점이 많은 두

도시의 협력 강화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두 도시가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교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상생하는 동반자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도 상라오시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안산에 머무는 동안 내실 있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라오시 대표단은 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며 의원들의 상라오시 방문을 언제나 환영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간담회 뒤에는 의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표단의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견학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상라오시 대표단은 의회 방문 마치고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및 지역 기관 방문 일정을 소화했으며, 19일에는 인천과 서울 등지를 방문하게 된다. 최정부/기자

대구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 가져"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뷰박스 스크린을 통한 직접 체험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지난 11일(금),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과 구민에게 알맞은 조례 제·개정을 위한 '북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2022년 1월,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북구의 현행 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조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법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대경문화관광콘텐츠협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였다. 연구회는 현 대구 북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 근거 법령 부족에 따른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 등을 중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은 "더욱 확대된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는 지역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므로 그 중요성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하위법령이 아닌 그 지역의 삶을 담고 있는 좀 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는 이상봉 의원(대표), 김상선 의원, 김상혁 의원, 김현주 의원, 임수환 의원, 장영철 의원,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지역 현장 벤치마킹 실시 등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인천가족공원과 소통

가족공원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개선점 청취 등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최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 현황과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은 47만여 평의 선진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원은 인천가족공원 사업단장으로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와 함께 봉안당, 제례실 등 제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호국봉안당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예우를 갖춰야 하기에 시설 준비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연례반복적으로 성묘객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추석 명절 성묘 종합 대책도 보고 받은 후 "차량 통제,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한 교통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응급 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수렴한 추진 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을 당부했다. 김유곤 의원은 "해외의 선진 장사시설들은 자연친화적, 문화·관광지로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라며 "인천가족공원도 해외 선진 장사시설의 변화상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현장을 보지 않고 상상만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며 "의원으로서 보고받으려는 권위적 자세를 지양하고, 먼저 현장을 보고 발품을 파는 의정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의정 활동의 능률을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남/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제부지사 만나 의정부 교통·경제 현안 건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동의정부역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7일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교통 차별적 요소 해결 및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지원을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동의정부역 신설 ▲의정부시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 중북부 지역은 서울과 연결되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상대적으로 타지역 도민들보다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IC에서 일산IC까지의 민자고속도로구간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포천IC까지 구간의 통행료의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 추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재정고속도로이나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고속도로라 비싼 통행료로 인한 경기북부도민들의 차별적 교통비 지불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라면서 "당장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의정부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제안한 동의정부역 신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8호선 종착역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역까지 논스톱 다이렉트 통과하는 GTX플러스 E노선을 민락·고산지구가 위치한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GTX플러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설계 시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GTX플러스 E노선의 동의정부역 경우는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 통과 확률을 높이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소동협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만난 도의회 국민의힘, 협치·소통 강화 통한 '협치 2.0' 구현 제안

김정호 대표의원 등 대표단 "연정에 준하는 협치 이뤄야... 소통 중요성 늘 염두" 당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나 기존의 협치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협치 2.0' 구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대표단을 찾은 김 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연정(聯政)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을 이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한 단계 발전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실무 논의가 한창인데,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협치를 구현했으면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상견례 자리로,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이은주 기획수석,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대표,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특히 양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도정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에도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선 8기 도정 운영도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 사례처럼 도부지사직도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나누는 게 맞다"는 의견을 김 지사에 피력했다.

양 수석부대표는 또한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립적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 본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협치에는 낮은 단계의 협치, 높은 단계의 협치가 있다"며 "지금 은 남 전 지사 때와 구조도 다르니,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치를 통해 도민들 보시기에 싸우지 않는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영기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 재출범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칭)여야정협치위원회'로의 기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질적 협치 구현을 위한 역할·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은현~봉암간 확포장공사 안전대책 마련 주문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은현면 봉암리 간 3.88km 도로

확·포장공사 부진한 공사 진행,

주민과 통행차량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절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8일 양주시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현~봉암 간 지방도 375호선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김민호 의원을 비롯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 신일중 경기도 지방도건설팀장, 어연선 은현면장,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시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 원을 투입하여 약 3.88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간 동 사업은 현장 내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선 등) 이설 과정에 2년 넘게 소요되고, 상수도 공사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진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의 역주행 사고위험 대책 마련과 함께 노면불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민호 의원은 공사구간 중 봉암교는 당초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2023년 9월에 개통 완료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진행된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된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도 확보는 물론 차량의 야간 이동 시 안전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간 동 사업은 현장 내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선 등) 이설 과정에 2년 넘게 소요되고, 상수도 공사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진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김범상/기자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의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18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후속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안정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마음샘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유해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장, 청송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은원치료센터 김영숙 대표 등



이 경기도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현황 및 정책 방향, 실제 현장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방성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지자체 사회서비스산업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농업 측면에서 농촌은 생산지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농업은 식량 공급을 위한 1차 산업이 아닌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산업적 측면이 아닌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치유농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 지역특화 및 치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치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통합 관리 및 정책적 지원 연계, △ 치유농업 효과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네 가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고, "경기도는 치유농업의 공공 조건의 접근성·경제성·안전성·전문성 등을 이미 일정부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니,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각 분야별 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치유농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광주시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위해 임태희 도교육감 면담

조속한 고시 개정을 통한 성남 분당중학교와 한시적 공동학급 설정 건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신현초·신현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학부모들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광주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광주시 공립학교인 신현중학교는 인

근의 빌라촌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9년 18학급에서 30학급으로 지속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9.7명(1학년은 32.4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 부족으로 추가 증축보다는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교실로 교실 전환을 통하여 4개 교실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인근

30학급 규모의 인근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주 당협위원장(국민의힘, 경기광주출)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기존에 교육지원청이 검토하고 있는 교실 추가 확보나 인근 중학교 조기 개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현초·중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창준 의원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

는 2016년 설립 때부터 예상이 됐던 사안"이라며, "학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하여 성남 분당중학교와 한시적 공동학급을 설정해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재택의료센터의 개선과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파주시 금촌동 소재)를 방문하여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

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과 현황을 함께 이야기 한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라면서,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표창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역세권 르네상스 꽃피운 수원역로데오상권

2018~2023 5년간 총 80억원 투입한 상권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수원역 로데오 상권’이라는 통합브랜드를 탄생시킨 수원역세권 상권활성화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은 17일 오후 3시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에서 ‘수원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성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성과공유회는 ‘새로운 르네상스, 빛나는 수원역 로데오’라는 부제에 맞춰 지난 5년간 사업을 통한 수원역세권 상권의 변화를 돌아봤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수원역세권 상권활성화 사업은 5년간 2천 700여개의 점포를 위해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시설개선’은 물론

상권통합브랜드·마케팅 행사·스마트상권 조성 등 ‘소프트웨어’, 상인 역량 강화·마케팅 스킴 등 ‘휴먼웨어’, 상권관리기구 운영 등 ‘상권관리’ 등을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4개 수원역세권 상권(역전지하도상가,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매산시장, 역전시장)은 ‘수원역 로데

오 상권’이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공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상권 내 유동인구가 전년 대비 10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 중 팬데믹을 겪었으나 경영개선사업 등을 통해 매출액과 유동인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됐다.

상인들의 상권활성화 만족도도 높았다. 스마트하고 쾌적한 환경과 고객들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만족이 높았으며, 수원역로데오콘테스트 등 지역축제로 이어가길 원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사업비의 절반이 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투자되며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는 성공의 열쇠가 됐다”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상권은 물론 수원역세권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도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차기 회장 선출돼

“8개 지자체 화합해 국가정원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양천을 접한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의 제3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및 협의회 규약변경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 시장은 “8개 지자체가 화합해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8개 지자체장 전원 동의로 최 시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최호

권 영등포구청장이 차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사례를 공유했으며, 안양시는 쌍개울 문화광장과 충훈1교 인근 친수공간 조성 등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과 지자체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양천은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향후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민원실 특이민원 비상 대응 모의훈련… 신속 대처 주력

안산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 ‘하반기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원경찰서(교전파출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위험 상황을 가정한 민원응대 매뉴얼 순서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유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경찰에 악성민원인 인계 등 실제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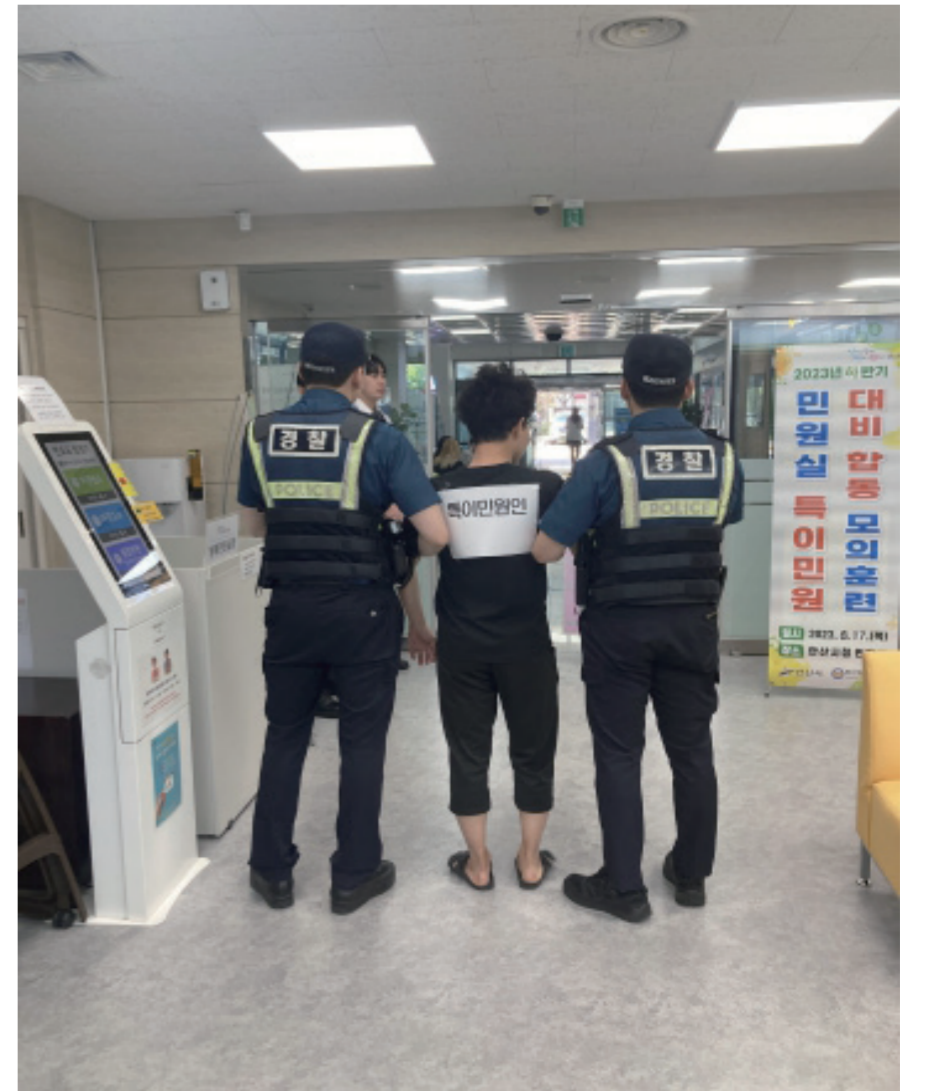
특히, 비상벨을 활용한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체계 구축하고,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김종민 시민협력관은 “특이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제2별관으로 이전한 시청 민원실은 민원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 여권민원실을 마련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화성시, 다자녀 지원혜택 민간업소까지 확대

화성시가 다자녀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민간업소까지로 확대한다.

민간업체의 참여 신청을 받아 협약을 맺고 다자녀가정 대상 우대업소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는 참여업체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시는 주령주령 동반점을 첫 번째 민간 우대업소로 선정해, 오는 25일부터 방문 시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제시하면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는 지난 7월 1일부터 ‘모바일 앱카드’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특D앱’을 설치하면 3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정우 주령주령 동반점장은 “화성시의 다자녀정책에 동참해 다자녀가정에 할

인 혜택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다자녀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시민에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실효성 있는 다자녀정책 추진으로 ‘돌이먼 더 든든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과 장난감대여점 연회비 면제 등 총 26개 사업의 다자녀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자녀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유나(YUNA) 프로젝트’로 위기가구 긴급지원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피월드복지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



고양특례시 및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과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한 ‘유나(YUNA)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나(YUNA) 프로젝트는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민간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You Are Not Alone)’의 앞머리 글자에서 따왔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고양시는 이를 토대로 촘촘한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에 이번 협약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용희 민간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정성진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성남시 35명 청년교류단, 자매결연도시 3곳 찾아간다

홍천·원주·삼척 차례로 방문…시 승격 50주년 홍보대사 활동

성남시는 35명의 청년교류단이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원주시, 삼척시 등 3곳을 찾아가 시 승격 50주년 홍보대사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 청년교류단은 사전 선발 과정을 거친 19~28세의 지역 거주자,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 홍보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미디어 전문교육(4시간)을 하고, 교류

활동에 관한 기획안을 직접 짜도록 했다.

청년교류단은 첫날(21일) 오전 9시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썬샘홀에서 출정식을 한 뒤 각 자매결연도시를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홍천군(2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40명과 과일청 만들기, 업사이클링 파우치 만들기 등을 함께하고, 현지 포도 농장과 연계해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음로 40여 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원주시(22일)에선 뮤지엄산을 탐방하

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을 찾아가 청년간 네트워크 활동을 한다.

삼척시(23~24일)에선 현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원목 책상, 침대 뼈대(프레임) 등의 목공 가구 10점을 만들어 취약계층 10가구에 기부한다. 현지인과 함께 하는 삼척 해변 정화 봉사 활동과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홍보 활동도 한다.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성남시청소년재단 공식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



고, 각종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때 활용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와 자매결연도시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성남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인천시, 소상공인 125개 업체에 경영환경개선 지원

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5개 업체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125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

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 모집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인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신청자 발표는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말 중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육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 방역, 화재점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등 3개의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공급가액의 90% 최대 250만 원(자기부담금은 공급가액 10% 이상 및 부가세, 단위 사업별 지원 한도액 차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 받아

18일 열린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명예박사 학위 '시민 행복·복지 증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강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윤신일 총장으로부터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신일 총장은 "이 시장은 최근 팬데믹 대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원들을 대거 수용해 지혜롭게 지원하는 등 큰 역할을 하셨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대한 공헌을 해 사회복지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답사를 통해 "77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여러 성취를 이룬 강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남사·이동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7월엔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토록 했다"며 "앞으로 용인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남사·이동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단지가 국가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됐는데, 신청 후 6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이뤄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되고 인재 양성·기반시설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됐다"며 "강남대를 비롯한 용인의 대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시와 함께 운영하는 강남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교무위원과 졸업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남대는 이날 이 시장과 함께 최성군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박사 13명·석사 50명·학

사 348명 등 413명에 학위를 수여했다. 사회복지학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병상/기자



학교와 마을 잇는 시흥시 제2호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 개관

시흥시는 18일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소래초 복합화시설 조성은 지난 2018년 7월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가 함께 뜻을 모아 시작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지난해 2월 첫 삽을 뜨고, 올 7월에 시설을 준공했다.

시설 완공에 따라, 소래초등학교 운동장 아래 총면적 5,802.53㎡ 규모의 지하 부지에는 136면의 공영주차장과 조리실, 공연장, 작은도서관, GX실, 카페 등이 조성됐다. 관내 주민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 조성되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 공간이다. 교육·문화·체육시설에서부터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배곧누리초 내 시흥시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관하는 소래너나들이는 관내 두 번째 학교복합시설로, 북부권 원도심 지역의 공동체 문화 거점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영순 소래초 교장, 문정복 국회의원 등 다수의 지역대표와 관내 학생,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과 함께 VR 체험, 익스트림 별문소, 그림그리기, 포토 부스,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북부권 첫 학교복합시설인 소래너나들이가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소래너나들이의 더 큰 성장을 모두가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래너나들이는 개관 이후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생 대상 학교협력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부천시, '2023 부천미래교육포럼' 발대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18일 부천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으로 지역 교육생태계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2023 부천미래교육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조용익 부천시장은,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정숙, 박찬희, 과내경, 장해영 시의원과 부천미래교육포럼 위원 및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위원 위촉 및 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짐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추진하는 '2023 부천미래교육포럼'은 공동위원장인 조용익 시장과 김선복 교육장,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생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8개 권역별 위원회, 권역별 대표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등 156명이 참여한다.

권역별 위원회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및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하고, 기획위원회는 포럼 운영 방향 제시 및 권역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앞으로도 부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교육생태계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율과 균형을 교육공동체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천형 미래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포럼은 권역별 교육 현안 및 정책과제 공유,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통한 부천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한눈에!!

경북도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지방시대 위기를 극복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핵심 시책들을 홍보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크게 지방시대 대전환, 농업 대전환, 산업 대전환, 그리고 대구경북공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시대 대전환' 핵심은 K-U시티 프로젝트다.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협력해 각 시군별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은 양질 일자리 제공,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 지자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못지않은 주거, 의료, 교육, 문화 시설을 확충해간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 1월 구미 반도체 U시티(1.31.)를 시작으로 포항 이차전지(양극재)U시티(2.15), 의성 세포배양 U시티(3.28), 봉화 바이오메디 U시티(6.7.), 울릉 글로벌그린 U시티(6.12.), 청송 항노화 U시티(7.12.) 등 6개 시군과 각 시군 소재의 기업, 그리고 포스텍, 한동대, 금오공대, 구미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대학과 U-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 대전환'은 '농촌마을의 법인화' 지주는 주주로, 청년은 월급 받는 농부로!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된다. 개별 영세 농가를 법인으로 조직화하고 첨단시설과 기계 도입을 지원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며, 또, 기존 농가와 청년농가 공동영농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창출해, 청년농의 정착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구상 아래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문경, 구미, 예천을 디지털 농업혁신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경북도는 디지털 농업 혁신타운을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모델로 확산시켜갈 계획이다.

▲'산업대전환'은 최근 잇따른 낭보로 지난 3월, 안동, 울진, 경주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은 백신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글로벌 백신생산의 허브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이어 4월, 3번의 신청 끝에 유치에 성

20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지방시대 선도하는 경북의 담대한 구상 제시 지방시대, 농업, 산업 3대 대전환 + 대구경북공항으로 지방시대 성공모델 구축 이철우 도지사, "경북 위기=지방의 위기, 국가적 위기, 도가 직접 기획·설계한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여는 성공모델이 되도록 행정 집중"



공한 구미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 전기·전자, 통신 등 지역 주력 제조업과 시너지를 창출해, K-방산 전초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7월 선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포함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근대화의 첨병이었던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공항은 지방시대, 농업, 산업 3개 분야의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9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와 항공물류 기반시설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의성군은 항공물류 중심의 주거·산업

복합신도시로 개발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백신 저온유통시설, 중소기업 공용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 등을 건설해 대구경북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외에 전시·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청년취업창업지원사업,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 등 경북도의 지원으로 지역에서 창업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창업기업들의 제품들을 둘러보고 시식·시음 기회도 제공한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에 걸맞은 콘텐츠도 선보인다. 지역 소재 업체로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브이알크루(대표 최성광)를 초청해 스크린 속 가상

개체들이 스크린과 현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나모픽MR 작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이자 국가적 위기다. 그러나, 더 이상 중앙집권적 대책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우리 경북도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대전환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도민들께서도 박람회에 많이 오셔서 경북도의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 시행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 전국 1등

민선 8기 첫해인 2022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 -이전공공기관 방문 비롯, 대구시장이 혁신도시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 강조 결과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이전공공기관, 지역대학 등과 지속 협력, 혁신도시 발전의 다양한 사업 지속 발굴, DRT 운영 교통불편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10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왔는데, 시는 평가 첫해 2019년에 기관표창을 수상한 이래 꾸준히 우수사업 개인표창을 받았지만, 3년 만에 다시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돼, 대구시로서는 큰 희소식이다.

2022년도 이행실적의 경우 특화발전 분야, 정주여건 분야, 상생발전 분야에서 3개씩 총 9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대구광역시는 이중 특화발전 분야와 정주여건 분야에서 1개씩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자 2명이 개인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민선8기 출범 후 1년 동안 훈훈표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러한 관심이 올해 한국지정정보화진흥원 데이터통합혁신센터 개소(4.20)와 대구한의대 혁신융합캠퍼스 기공(5.26), 그리고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8.9)라는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

는 밑거름이 됐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 견인하는 동시에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제2방산장과 제2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찾고 싶어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공공기관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특히,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지역대학, 기업체,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구혁신도시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결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광역시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대학,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DRT 운영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3년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박형준 시장, "국내외 정세가 임중한 만큼, 지역 안보에도 한 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중요성 강조

부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2023년 을지연습'의 기관별 계획과 추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지역통합방위 현안을 논의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목표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민·관·군·경·소방 등 1만9천여 명이 참여해 ▲전시 현안과제 토의 ▲도상연습 ▲민방공 대피훈련(8.23.)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자 회의를 주재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부산시 16

개 구·군 부단체장,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관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 ▲위원 의견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부산시장(부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내외 정세가 임중한 만큼, 지역 안보에도 한 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을지연습 진행을 위해 기관별로 차질 없이,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을지연습은 유사 시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공감해 주시고, 연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파인토피아 '봉화 햇 고춧가루'

홈쇼핑 판매로 2억8천만 원 실적으로 인기몰이해

봉화군이 생산하는 파인토피아 '봉화 햇 고춧가루'가 홈쇼핑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봉화 고춧가루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소비자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NS홈쇼핑과 지난 14일 홈&쇼핑을 통해 파인토피아 봉화 햇 고춧가루 판매 행사를 벌였다.

지난 10일 NS홈쇼핑 방송에서는 고춧가루 500g×3봉을 67,900원, 500g×6봉을 124,900원에 판매했으며 지난 14일 홈&쇼핑 방송에서는 고춧가루 500g×3봉을 65,900원, 500g×6봉을 128,800원에 판매하며 2억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명성을 입증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전

국 소비자에게 봉화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에 힘써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농산물 유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파인토피아 봉화의 브랜드 홍보와 봉화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TV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축이 되어 봉화 고춧가루 TV홈쇼핑 판매를 총 3회 추진한다.

장문화/기자



안동시-남부발전, 지역 중소기업 '안전문화 조성' 맞손

발전소 주변 중소기업 위해 안전컨설팅 및 안전용품 지원 나서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풍산농공단지와도 상호 협력하기로 권기창 안동시장, "이번 남부발전과 협력이 기업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사망 등 각종 산업재해 예방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해

안동시는 한국남부발전(주)과 발전소 주변지역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이 나선다.

안동시는 지난 17일, 남부발전,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협의회, 풍산농공단지협의회와 함께「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안전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동시와 남부발전은 각 협의회를 통해 안전역량 강화가 필요한 희망기업 16개사를 지난 7월까지 신청받았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등 맞춤형 안전진단 컨설팅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재난 상황에 방재자원을 공유하는 등 신속히 공동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승우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로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강화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안동지역 중

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관내 기업 대다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로 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전 전문인력이나 예산을 마련할 여건이 부족하다"라며, "이번 남부발전과 협력이 기업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사망 등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청량함 · 달콤함 · 고소함 가득 드려요!

영양군, 먹거리 탐방 제2탄 '메밀나루'

8.16~19 코엑스 한가위 명절선물전 경북 우수 가공제품 홍보관 운영 수도권 소비자 공략, 유통 MD 및 수출 바이어 판로개척 상담 지원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향후 식품산업 트렌드와 시장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식품개발과 판로개척으로 가공 경영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가위 명절선물전에서 『경북 우수 가공제품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은 '자연을 담은 오감가득 선물'이라는 주제로 경북의 청량함·달콤함·고소함·빨간 싱그러움 등을 느낄 수 있는 가공제품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7월 사전 신청을 통해 3:1의 경쟁률을 선발된 6개 업체가 참여했다.

다가오는 한가위 선물로 적합한 경북 특산물인 샤인머스켓 스파클링 막걸리, 허니스타, 맑은 참기름, 오미자청 등 55종의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제품을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를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또 유통 MD(상품기획자), 수출 바이

어와 상담을 진행해 참가 경영체의 판로 역량을 강화시켜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은 매년 가공 경영체의 제품 개발과 유통·판매를 위해 농식품 기술지원과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전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유통·판매행사에 참여한 경영체의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하고 판매처는 42%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하는 도라지청 생산 영농조합법인인 농업기술원에서 R&D 특허기술을 접목한 사포닌 고품질 도라지청 상품개발을 지원한 것은 제품으로, 박람회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홍

보관을 통해 경북 가공품의 상품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



윤근수/기자

동래문화교육특구, 일본어 아카데미 「문화체험 캠프」 운영

고등학교 1~3학년, 일본인 고등학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동래구는 고등학교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일본어 아카데미 문화체험 캠프'를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동래구청 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문화체험 캠프는 ▲한·일 대표 음식만들기 ▲드론 체험 ▲공예 문화 교류 체험 활동 ▲일본 축제 체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식에는 동래구청장이 참석하여 수료증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NPO 글로벌넷 소속 일본인 고등학생 18명이 참여하여 또래 학생들이 함께 한·일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일 양국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유

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최된 일본어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캠프'에서는 일본인 유학생 멘토 등 60여명이 함께하여 생활일기 쓰기 배우기, 웹툰작가 및 애니메이션과의 만남, 유카타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희태/기자



한울본부, 한울에너지팜 SNS 홍보 이벤트 시행

한울에너지팜에서 유튜브 Shorts 찍으면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지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SNS를 통한 한울에너지팜 홍보를 위해 '유튜브 Shorts로 만나는 한울에너지팜' 이벤트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시행한다.

이벤트 참여는 한울에너지팜을 배경으로 30초 이상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QR코드로 접속하여 영상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QR코드는 한울에너지팜 내부에 비치된 배너와 포스터,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울본부는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을 참고하거나 한울원자력본부 홍보부(T.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한울에너지팜을 통해 지역주민 및 울진지역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과 원자력 에너지 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울에너지팜(Hanul Energy Farm)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자 복합문화 공간이다. 이 '에너지놀이터'에서는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형 콘텐츠를 통하여 에너지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에너지배움터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과 한울원자력본부 그리고 원자력 발전원리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처럼 탁트인 에너지카페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다 보면 신선한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경북도, 연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수산부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 선정, 국비 13.5억 원 확보 3년간 지능형 양식 모델 개발 및 보급으로 국내 연어 스마트 양식기술 선도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18일, 연어류 양식 시 적정 사육환경 및 성장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이미지, 영상)를 구축해 스마트 양식 산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산·학·연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연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양식 산업을 지능화해 자동으로 양식생물의 최적 사육환경 유지, 먹이 공급 등 스마트 양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경북수산자원연구원, 경북연구원, 경북대, 금오공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주)부상, (주)빌리언이십일, (주)에스유지 등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연어 스마트 양식 데이터 구축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양식 산업을 지능화해 자동으로 양식생물의 최적 사육환경 유지, 먹이 공급 등 스마트 양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올여름 안동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대구 엑스코에서」 ‘관광도시 안동’의 설렘과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20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안동 팝업홍보관 3일간 운영 안동만의 즐길거리인 축제·관광 등 킬러 콘텐츠 적극 홍보 내 고향 안동 ‘고향사랑기부제’참여 독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다채로운 매력과 재미를 대구 엑스코 ‘안동 팝업홍보관’(동관 6홀)에서 즐겨보자.

하회탈 클레이 만들기와 전통부채 꾸미기 체험 등 가족 나들이객이 즐길만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창사 35주년 맞아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 미래 50년 초석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공사의 모든 역량 집중 정명섭 사장, “이날 35년간 공사가 이뤄온 성과에 대해 직원 격려, 아울러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구시의 미래발전 50년 사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적극 독려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7일(목), 창사 35주년을 맞아 전체 임직원들이 공사 대강당에 모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 발전을 위해 대구시의 미래발전 50년 사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독려했다.

일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14년 만에 대구 유치에 성공한 제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6

월 대구시,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초석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천군,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

붕어, 잉어, 메기 치어 방류로 생태계 보전 및 수산 자원 보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치어 방류사업 추진해와

예천군은 지난 18일, 하천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 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예천을 한천 등 12개 읍·면 하천과 저수지에서 붕어, 잉어, 메기 등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한편, 군은 내수면 서식 환경 변화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치어들을 방류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유입으로 사라져가는 토종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내수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했다.



청송군, 농작물 냉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 농작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 윤경희 청송군수, “주우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작물로는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 2,975ha가 기록됐고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조사됐다.

중전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 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개정안에서는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주시, ‘상수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안동시와 지방상수도 상호 공급 협약...주민 불편사항 해결 박남서 영주시장, “이웃 지자체 간 상생협력은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 경주”

경북 영주시의 ‘상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주시와 안동시, 울진군, 삼척시, 울릉군 등 5개 지자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영주시는 지난 5월 안동시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물 공급 소외지

역에 상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지역 374가구 636명과 안동시 북후면 지역 70가구 147명 등 총 780여 명의 주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아 식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무료 운영 실시

김주수 의성군수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로 자신 건강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확대에 시행"

의성군은 '마음에도 안부를 물어봐주세요.'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의 마음건강돌봄을 위해 의성군청 민원실과 보건소에 무인정신건강검진기를 1대씩 설치하여 무료 운영한다. 무인정신건강검진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장비로, 2~3분만 투자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우울, 스트레스, 중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사람과 대면이 필요하지 않아 마음 편하게 정신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검진이 완료되면 결과를 바로 출력하여 확인 가능하며, 주의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를 통해 손쉽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올해 첫 벼 베기 실시

조기 수확으로 전량 추석 명절 선물용 판매

울진군은 지난 16일, 임종관(59세) 광풍2리 이장이 온정면 광풍리 43번지 일원에서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 벼 베기 품종은 지난 5월 2일 모내기한 조생종 '진옥벼'로 조기 재배에 적합하고, 쌀알이 맑아 외관 품질이 좋으며 우수한 밥맛으로 알려진 품종이다. 약 2ha에 면적에서 수확한 벼는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명절 선물용으로 전량 판매될 예정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가을철 태풍으로 인해 도복 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만생종에 비해 조기에 수확할 수 있고, 이모작도 가능한 조생종 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입암면,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

신재성 입암면장, "사고나 질병,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지역 농가가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촌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

경북 영양군 입암면은 본격적인 고추 수확철을 앞두고 갑작스런 사고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자 지난 18일(금) 입암면, 유통지원과, 환경보건과,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20여 명과 함께 입암면 연당리에 위치한 고추밭에서 고추 수확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주 정모씨(남, 85세)는 "갑작스런 사고로 일손이 부족해 고추 수확을 어떻게 하나 걱정

이 태산같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준 면장님이와 직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재성 입암면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일손 돕기에 적극 임해준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며 "사고나 질병,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지역 농가가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회원 간 화합,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다짐 결의문 채택 김학홍 행정부지사, "농업 위기 속 미래 첨단농업 대전환 적기"

"새농민 회원들도 농업·농촌의 진정한 리더로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에 주역이 돼 주길 당부"

농업·농촌의 진정한 리더로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새농민회 경북도회는 지난 18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 다짐과 회원 단합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청송군수, 경북도의원, 한국새농민회 중앙회장, 한국새농민회 경북도회장, 농협 경북지역본부장, 새농민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다.

한편, 새농민회는 농업 각 분야에서 성공한 선도 농업인으로 1966년부터 매년 새농민상을 받은 농업인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새농민상은 자립, 과학, 협동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 농업인 부부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매년 이달의 새농민상 150부부를 선발, 이 중 20부부를 뽑아 새농민 본상을 수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834부부로 구성돼 있으며, 경북에는 850부부가 있다.

정시창 경북도 새농민회장은 대회사에서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지역을 선도하는 새농민회가 되자"라며 "우리의 뿌리인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실의 증진과 권의 향상을 위해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농업이 위기를 겪고 있으나, 지금이 바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첨단농업을 위한 대전환의 적기"라며, "새농민 회원들도 농업·농촌의 진정한 리더로 앞으로 혁신적인 변화에 주역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군위군에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본부 설치

김진열 군수, "합동조사단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군위군은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조사본부가 군위군청 3층 대회의실에 설치돼 조사 종료시까지 합동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 15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군위군 피해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일반 수해 지역 지원항목 외에 12가지 추가 항목을 지원 받는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청에 설치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국 최초 경주 스마트에어돔축구장, 폭염 속 전국 유명세

냉·난방 완벽한 사계절 전천후 에어돔축구장, 여름 유소년축구대회에 큰 인기 올 2월부터 7월까지 230여팀 9,290여명의 축구훈련, 체육행사 등 이용계층 다양 동계훈련, 보문단지·숙박·관광 인프라 연계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매개체 역할

지금 경주에는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023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지난 12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중국 '양저우시', 일본 '나라시' 축구팀을 비롯해 전국의 학교·클럽에서 201팀, 1만 여명이 출전하여 1,600여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축구공원(6면), 알천구장(5면), 화랑마을, 시민운동장, 에어돔축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중 단연 인기가 있는 경기장은 지난 4월에 오픈한 국내 최초 정규규격 실내 축구장인 '스마트에어돔'이다.

시설은 2020. 2월 문체부의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만 752㎡ 부지에 107억을 들여 정규규격 인조축구장 1면(105×68m), 선수들의 스피드 향상과 근력 강화 훈련을 위한 모래훈련장 1면(9×25m), 전술회의실, 탈의실, 주차장 등을 완비한 사계절 전천후 축구 전문구장으로 공기압을 이용해 기동과 웅벽 없이 거대한 막 구조물로 가로 120m 세로 78m 높이 25m의 K리그 인증 구장이다.

특히 일반 건축물보다 인장력이 높아 지진·태풍에 강하며,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온·습도 및 기온, 강추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 영향과 전혀 무관하며 여름에는 영상 24도, 겨울에는 영상 18도, 습도 50%를 유지하여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실내 그림자와 눈부심이 없는 완벽 조명시스템을 도입하여 눈부심과 그림자 방해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어

축구 전용 에어돔으로 완성도 높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올 2월 시범운영부터 7월까지 축구관련 221팀 6,590명과 황남초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11회 2,700여명 등 9,290여명이 사용했으며, 전국 지자체, 관련기관 벤치마킹 40여회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 열린 화랑대기 U-10 축구 페스티벌에서는 축구를 첫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 에어돔에서 프리킥·트래핑·챌린지 등의 이벤트도 가졌다. 이번 유소년축구대회에서도 24개 팀이 이용할 계획이다.

에어돔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한 선수는 "매년 경주에서 열리는 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하지만 8월 무더운 날씨로 부담이 있었는데,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주에서 첫 접해본 날씨 관계없이 냉난방이 완벽한 구장에서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고 팀 또한 승리를 해서 매우 기뻐했다."며 엄지척 에어돔축구장을 치켜세웠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 무더운 여름,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다양한 팀들에게 에어돔경기장을 제공하여 감독,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동계훈련 유치, 엑스포 공원, 보문단지, 풍부한 숙박,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의 매개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관용·포용·화해·통합의 김대중 정신 계승”

전남도,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행사

전라남도는 18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행사를 열어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김대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추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화, 추모사, 극단 깃들의 추모곡,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영상 편지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해 대구에서 추모식장을 찾은 서혜정 씨는 “값은 정치적 편박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추모곡을 감명 깊게 봤다”며 “오늘날 우리가 숨 쉬듯 당연히 누리며 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음에도 그의 삶과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통령상을 만드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중이다. 오는 10월 ‘김대중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2023 김대중평화회의’, 2024년 1월 탄생 100주년 기념식 개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박종배/기자

나주 다도참주가 ‘라봉’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차지

농림축산식품부·aT 주관 탁주 부문 대상(농식품장관상) 수상

전남 나주에 양조장을 경영하는 ‘다도참주’에서 생산한 라봉(제품명)이 국내 최고의 탁주로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다도참주의 ‘라봉’이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라봉은 전라남도 내 체 출품 제품 중 유일하게 수상 반열에 올라 영예를 더했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가 공인하는 주류품평회로 우리 술의 품질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서 주관한 올해 품평회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국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된 가운데 엄격한 심사

를 통해 15개 제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라봉은 한라봉 특유의 시트러스와 시원한 풀 내음이 가득하며 은은한 단맛에서 시작해 쌀 특유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는 맛으로 품평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대상을 수상한 라봉은 상금 500만원과 더불어 추석 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샷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로 혜택이 주어진다.

장연수 대표는 최근 유행병 시장과 만나 대상 수상 기념 촬영을 함께 했다.

유행병 나주시장은 “라봉으로 지난해 남도 전통주 품평회 대상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다도참주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나주 농산물로 만든 우리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청년유입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도전장 내민다.

청년농업인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200억) 도전



남원시가 초기 높은 투자비용으로 스마트팜 창고가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 재배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4~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사업비 총 200억원)에 도전한다.

남원시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유입 및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도전하며, 사업 대상지를 대산면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산면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폐열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 적지로, 앞서 토지확보 선행을 위해 지난 10월과 13일에 대산면 감성마을과 노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활용 동의를 마을 주민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되면 부지 5ha 이상에 부지 기반조성, 온

실, 에너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등까지 연계되어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단지 확보보급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남원시만의 강점 등을 피력하는 등 ‘남원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선정 준비에 매진하겠다”면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촌 고품화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남원시가 스마트 6차 농업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민생 안정책 ‘추석 택배비 추가 요금 지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

완도군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이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8월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이다.

신청인이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운임을 지불했다더라도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섬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영을/기자

함평군, 신나는 여름방학 ‘어린이 건강노리요리교실’ 성황

전남 함평군의 ‘어린이 건강노리요리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의료소에서 나산·해보·월야면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노리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양 간식 만들기, 음악 즐기기, K-Pop 방송 댄스, 클레이아트 만들기 등 영양교육과 신체활동이 중심이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은 특히 올바른 식품 선택하기 등 영양교육과 조리 실습에 즐겁게 참여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이제 혼자서 자신있게 영양간식을 만들 수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심화섭 보건소장은 “성장이 건강 습관이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된다”며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생활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도시와 정원은 공무원이 공부한 만큼 보인다

일류순천 미래비전 워크숍 개최로 직원들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공유시간 가져



노관규 순천시장이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 산하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함께 도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는 18일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노관규 시장의 주재로 격식과 형식을 파기한 토론 형식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원박람회 전후, 일류순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은 노관규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이 지닌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4개 분야(▲생태, ▲경제, ▲문화, ▲정주 환경) 관련 핵심사업 브리핑으로 순천 미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는 국소별 비전과 목표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부서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의 미래비전과 철학에 대해 공유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작성 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위해 개최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관광객 모객을 위한 단순한 이벤트 트가 아닌 도시의 판을 바꾸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었다며,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도시 미래비전을 수립하는데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공유된 미래비전은 부서별로 구체화하여 다음 달 5일과 6일에 개최될 2024 시정 주요 업무보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준/기자



진도군, 을지연습...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등 훈련 실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2023년 을지연습 실시

진도군이 21일부터 24일까지 법정 부적으로 실시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실제 훈련과 군민 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16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21일 연습 첫날 오전 6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전시 직제 편성 훈련 ▲기관 소산·이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 실제 전쟁 상황을 고려한 공직자들의 전시 임무 숙지와 충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전시 예산 편성·운영, 복 핵 위협 시 대처방안 등 전시 주요 현안 토의를 진행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22일 육군 제8539부대

1대대,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등 5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한 테러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23일 오후 2시부터는 적기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진도읍사무소에서 실시하고, 24일 연습 마지막 날에는 2023년 을지연습 종결 보고 등 훈련 강령을 끝으로 연습을 종료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을지연습을 통해 민 관 군 경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튼튼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추석기간 섬주민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섬지역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을 통한 섬 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추석을 앞두고 목포 지역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든다.

목포시가 도심보다 비싼 섬 지역에 9월 한 달간 섬지역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국비 1,88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섬 지역 주민이 9월 한 달간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용한 택배 추가운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의 달라도, 울도, 외달도, 장좌도, 우도 5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약 451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목포시 양율로 203)에 우편을 통해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섬 주민 1인당 3만5천원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신청 택배사의 택배이용정보를 활용, 11월 중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렸고, 추후 더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주민참여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의 길을 낸다

하반기 37개 공공기관 등지에서 154명 취업역량 강화 경험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참여자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직무인턴사업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학생 직무인턴사업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7주간 진행됐으며, 공공기관·기업 37개소에 154명의 대학생이 배치돼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청년 취업과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 '기업가 정신 특강', ▲청년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선배 창업가 특강', ▲국내 기업·기관 채용 및 면접 동향, 올바른 면접법 등 '취업 성공전략 특강' 등도 진행됐다.

전북도는 직무인턴 수료자의 의견수렴 설문 등을 통해 나온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도 사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를 대표해 수료증을 수여 받은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김성범 학생은 "전북소방본부에서의 직무인턴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설계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업무능력 외에도 조직생활과 사회경험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 문성철 과장은 "새만금 일부 산업단지가 지난 6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7월에 이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됐다. LS그룹 등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새만금이 세계적인 산업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산업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 취업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화순군,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화순군 3개 팀 메달 6개 획득

화순군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12까지 10일간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화순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등부)'가 막을 내렸다.

125개 팀 1,300여 명의 중고등부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 두 종목으로 진행됐다. 개인전은 남녀단식과 남녀 복식, 혼합복식으로 펼쳐졌다.

화순군에서는 4개 팀(화순중, 화순제일중, 화순고, 전남기술과학고)이 출전했으며,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중등부에서는 화순중의 정다환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고등부에서는 전남기술과학고 남자부 단체전에서 준우승, 박성주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화순군에서는 연서연 선수가 박성주 선수(전남기술과학고)와 함께 혼합복식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복식에서 연서연·김미주 선수가 2위, 김미소·안원희 선수가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학교 대항 배드민턴대회는 우리 군에서 매년 열리는 대회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윤경호/기자



강진 하맥축제 기간, 떡깨비로 주문하면 최대 8천원 할인

업체는 매출 증대로 '윈-윈'

강진군이 제1회 강진 하맥축제 기간을 포함해 오는 31일부터 9월3일까지 4일 동안 공공배달앱 '떡깨비'로 주문하면 5,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떡깨비에서 1만 5,000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한 사람당 매일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돼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는.

이달 31일과 9월1일에는 즉시 할인 5,000원 쿠폰이 적용되고, 9월2일부터 3일까지는 기존에 실시되던 배달료 3,000원 할인 쿠폰까지 추가로 적용돼 모두 8,000원이 할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강진 하맥축제 기간과 강진읍 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떡깨비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 구입 때 받는 10% 할인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쏠쏠하다. 이와 더불어 공공배달앱 떡깨비 중개수수료는 1.5%로 민간배



달업에서 발생하는 입점비,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내 소상공인 및 군민들 사이에 떡깨비 앱 가맹점 등록 및 설치는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올해 들어 2월 누구나 2,000원 할인, 3월 강진 봄 축제 5,000원 할인, 5월

원인 증가할 수 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떡깨비' 사용 증가로 강진군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음은 물론 지역민의 소득향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진읍 BHC치킨 점주는 "강진군에서 떡깨비를 통해 특별이벤트를 실시한 덕에 가게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기쁘다"고 말했다.

중앙로 상가 번영회 임영관 회장도 "떡깨비를 많이 이용해준 덕분에 강진읍 상가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에 열리는 제8회 강진만 추수는 갈대축제에서도 떡깨비 할인 쿠폰 이벤트는 축제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강진읍 강진군은 "강진 하맥축제 기간 강진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진읍 시장 주변 상가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시 때 5,000원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며 "앞으로도 강진만의 특색 있는 축제 개최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해 강진읍 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강진읍 시장, 중앙로 상가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구례군-카카오모빌리티,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협약 체결

오는 9월 공유자전거 200대 도입 운영

전남 구례군은 16일 (주)카카오모빌리티와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위한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황태선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과 (주)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9월부터 일반형 공유자전거 200대로 카카오T바이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례읍사무소, 구례의료원, 공설운동장 등에는 생활형 공유자전거 거점을 설치하고, 섬진강대 나무숲길, 수달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형 공유자전거 거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유자전거 운영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유자전거 운영 수익금을 구례군 지역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유자전거는 구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재밌는 방식으로 구례를 여행할 수 있게 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바이크 시범서비스를 시작, 생활 속 이동이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성현/기자



신안군,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 개최

신안군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하의도에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은 신안군 박우량 군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과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의도는 故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으로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했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해 서거 이후 매년 추도식을 이어오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경제대립,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세계평화에 앞장

서 온 김대중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라며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과 위상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故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하의도에 대한민국 정치인물사진박물관과 삼대교로 연결된 신의도에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여 하의3도를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 한가득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재민리수련장과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개최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조직위원회는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곳곳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주행사장 내 솔방울전망대와 전시관, 체험존, 힐링광장 등 곳곳에 40개가 넘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4개 시군 부행사장에서도 20개가 넘는 연계행사와 축제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설악산 주요 봉우리와 울산바위, 동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솔방울전망대 걷기 체험은 안전한 경사의 데크를 따라 산책하는 듯한 기분으로 오를 수 있으며, 중간중간 26개의 포켓전망대가 있어 오르는 동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16m 높이의 슬라이드와 상층부 매시제일 바닥 조형으로 스릴감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푸른전시관 내에는 키오스크 신청을 통해 향후 실제로 강원도 산에 나무를 심고 휴대폰으로 인증받는 '산림지킴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평화관 내에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가상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드는 '평화의 숲 미디어아트', 백두대간, DMZ를 실제로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하는 'DMZ드론라이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유산관 내에는, 자연적으로 생성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부행사장 연계행사와 축제 등 체험할 수 있는 요소 풍성

되는 나무의 피톤치드를 체험해보는 '피어나는 향기', 나무와 숲을 소재로 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주크박스 형태의 '숲의 노래', AR로 제작된 아름다운 나무의 영상을 태블릿PC로 체험하는 '스프린에 담은 숲', AR로 제작된 한국화, 서양화 등 다양한 회화작품을 태블릿PC로 감상하는 '캔버스에 담은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휴양치유관 내에서는, 산신령과 대장군, 허준으로 분장한 배우들의 참여형 퍼포먼스 이벤트가 진행되며, '숲속 놀이터', '숲속 캠핑장' 체험, 그리고 강원도 내 유명 숲길 및 관광지 VR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존 내에는 숲속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해주는 '숲속사진관', 솔방울을 활용한 나만의 '솔방울트리 만들기', 바다재료를 활용하여 액세서리를 만드는 '강원도 바다재료 클래스', 드로잉 작가와 함께 나만의 머그컵을 만드는 '산림드로잉, 숲을 그리다', 바다 모래 등을 활용한 디퓨저 및 석고 방향제를 만드는 '강원도 숲속 향기 만들기', 다양한 목악기를 연주하고 만들어보는 '숲을 연주하다', 친환경 그림물감을 활용하여 염색하는 '천연염색체험', 나만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목공예품 제작' 체험을 비롯하여, 궁궐목 만들기, 나무 라탄을 활용한 만들기, 임산버섯 전시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새모빌, 고래조명, 핸드폰 거치대 등 상상력으로 각종 나무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무장난감 놀이마당 축제'와 임업기능인들이 벌목, 기계통 분해결합 맞춤 절단 등의 실력을 겨루는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야외산림장비전시장에서는 평소 보기 힘든 산림장비 탐승 체험을 할 수 있고, 힐링광장에서는 트리하우스와 인디언집, 통나무주택, 캠핑카라반 등의 시설 체험을 비롯하여, 나무 사이를 날 수 있는 '어린이 질라인'과 '이동식 암벽등반 체험시설', '방탈출 미션', 숲속 보물찾기와 오징어게임 등을 즐기는 '숲속 플래이그라운드', 제기차기·굴렁쇠굴리기 등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리사이클링 전통 놀이터'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숲속 산책로에서는 여유로운 숲속 힐링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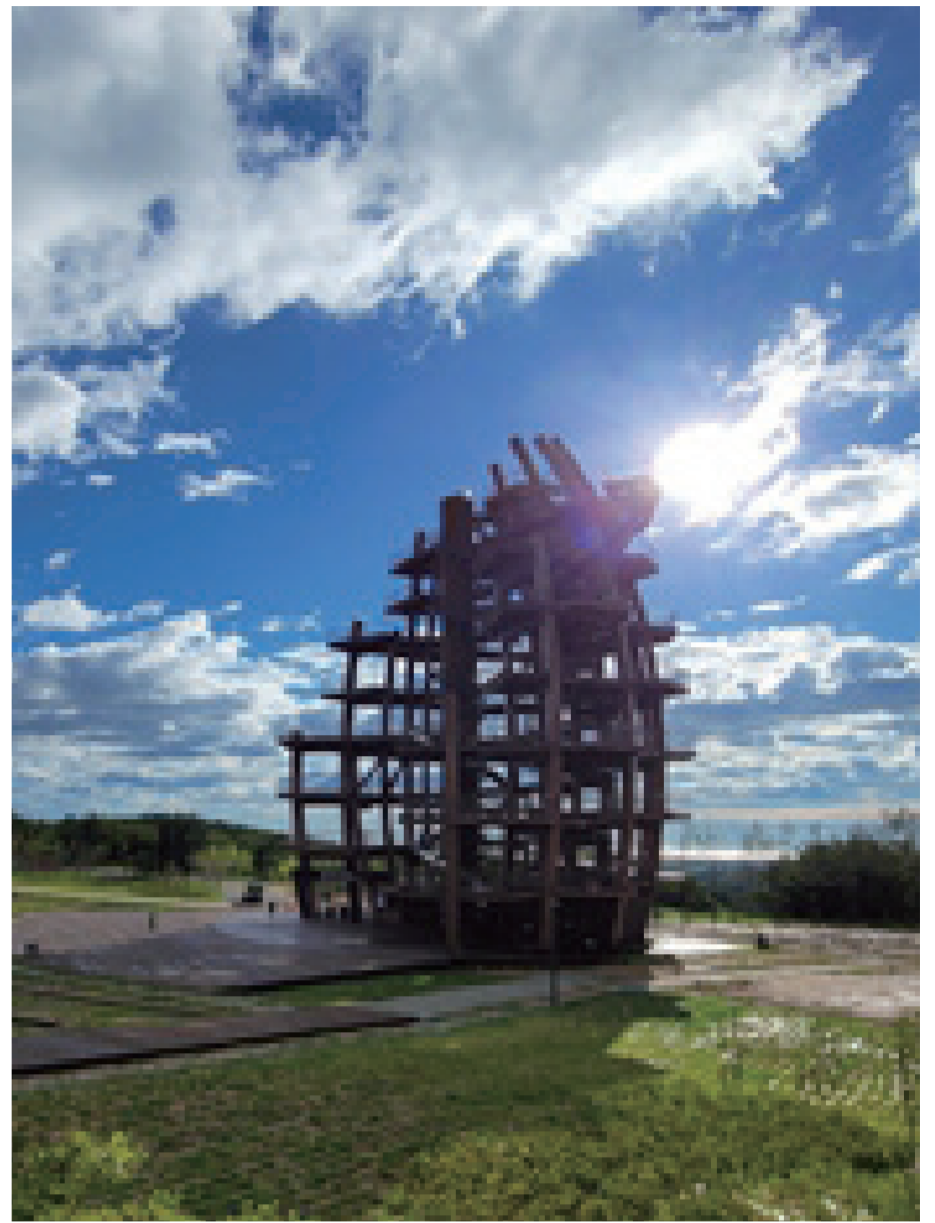
아울러 부행사장에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행사를 마련한다. 고성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버스투어하는 'DMZ 평화탐방투어', 주요 관광지 방문 인증 시 고성사랑상품권을 증정하는 '고성 테마별 스탬프투어'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중 '고성통일명태축제'와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속초에서는 청소년유원지 일원에 미디어아트와 홀로그램로드, 불빛 터널, 국화꽃 길 등을 조성하는 '빛으로 표현하는 생명의 숲'을 운

영하며, 설악산자생식물원에서는 '숲 체험'과 '산림문화백일장', '온드림 숲속 힐링교실'을 운영한다. 국립등산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과 동호인 경연대회'가 열리고, 행사기간 중 '청초호 국화전'과 '설악문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인제 용대관광단지 일원에서는 '임산물한마당축제'와 '가을꽃축제', '미니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임산물을 맛보고 아름다운 가을꽃과 정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암산 용늪 습지 생태탐방'과 '백담사 템플스테이', '자작나무숲 생태탐방'도 함께 운영한다.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 '가족힐링숲속 목공체험'과 '목공예 기술자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숲속기차', '하늘나르기', '질라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행사 기간 중 개최하여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단순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 관객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올가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에 오시면 강원도의 아름다운 숲속에서 즐겁게 체험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방역 철저 당부

태백시는 방역수준 하향조정 및 휴가철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위생 및 방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더운 여름철 날씨와 방역수준 하향으로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휴가철이 겹쳐 관내 확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집단감염사례 역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감염추세는

재감염보다 최초감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개인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백신 및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자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박병기 보건과장은 "기나긴 코로나19

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 의료진은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께서는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보내기 "개인 생활방역수칙"

- 1.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방역 철저 (비누로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2. 밀폐·밀접·밀접(3밀)한 장소에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 3.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신속히 진료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4. 고령·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KFSO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장
- 5.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 안건 통과...세계태권도 중심도시, 춘천 우뚝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유치 및 세계태권도대회 3중·3년 연속 춘천개최' 확정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유치 안건이 세계태권도연맹(WT) 임시집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춘천은 명실상부 세계태권도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춘천 서면 갤러리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임시집행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임시집행위원회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포함해 30명의 집행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초기의 관심을 보였던 주요 안건인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유치, 세계태권도대회 3중(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3년 연속 춘천 개최 안건이 모두 결정됐다.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인 19일 협약서 서명을 하면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춘천 유치는 확정된다.

그동안 시가 간절히 염원하던 세계태권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순간이다.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30만 춘천시민들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태권도에 대한 모든 일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추진력에 있다.

육동한 시장은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 50주년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세계태권도대회 3년 연속 춘천개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역 없이 직접 영문으로 연설을 해 참석 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계태권도연맹(WT) 유치 제안평가 당시 평가위원장 자격으로 춘천을 찾았던 피몰(Pimol Srivikorn) 위원장이 집행위원들에게 본인이 느꼈던 아름다운 춘천과 열정 가득한 춘천시민들을 소개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유치 확정에 따라 시는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213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를 유치, 전 세계에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태권도 교육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태권도를 통한 '체덕지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하고 인성 바른 인재로 배출하는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호 아름다운 전경과 어우러진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물은 '춘천호수권 관광 테마'의 대표건물로 자리매김해 시 관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다.

매년 수만명의 외국인인 '세계태권도대회'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을 찾는다.

이를 통한, 태권도 관련 테마관광, 문화 공연과 전문브랜드 육성 등 스포츠 마이스 산업이 춘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8월 18일부터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 중인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제1회 축제일에도 63개국에서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방문객까지 하면 3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 개막행사에는 'WT시범단공연', 'K-POP 공연', '블랙이글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개막식 당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송암스포츠타운 일대 차량 통제를 준비하는 등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장이자 30만 춘천시민의 일원으로서 태권도로 춘천이 변화하는 것을 꿈꿔 왔다"라며 "본부 유치가 어려움 없지 않았지만, 태권도 중심도시로의 도약과 역동하는 도시로의 발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부단한 노력과 춘천시민들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시민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동원/기자

원강수 원주시장, 천만 관광객 견인할 랜드마크 구상

2박 3일간의 벤치마킹 일정, 영월에서 마무리



원주 관광지도도를 새롭게 바꿔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려는 원강수 원주시장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7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축제인 'Good Festival'에 참석한 원강수 시장은 배광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만나 함께 칠성종합시장과 칠성야시장을 둘러보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평명, 장성, 광주, 곡성, 밀양, 대구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주요 관광시설을 견학한 원주시 벤치마킹단은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영월을 찾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영월 명경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센터를 방문해 직접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설 체험을 했고, 치유숲길을 둘러보며 산촌 경제 활성

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기존의 박물관을 복합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영월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한 영월 젊은밀와이파크에서는 도시 재생 공간 활용에 대한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은 전국을 돌며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갖춘 주요 관광시설을 견학하고 노하우를 듣는 등 원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천만 관광객 달성을 견인할 원주만의 개성을 가진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원주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속초시, 속초형 안심보육센터 제1호 현판식 개최

맛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야간연장형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

속초시가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을 속초형 안심보육센터 제1호로 지정하는 현판식을 관련기관 단체장,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7일 개최했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속초형 안심보육센터는 맛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에 안정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롯데캐슬어린이집 원아 외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또한 야간보육이 필요할 시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 보육신청서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

용 가능하다. 야간연장 이용료는 시간당 4천 원 매월 최대 60시간, 24만 원까지 지자체에서 지원되며, 연장반이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토요일은 15시 30분부터 24시까지 보육가능하며, 속초시는 속초형 안심보육센터를 여러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보육 여건의 어려움으로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진 현 상황에 속초형 안심보육센터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

다."라며, "속초형 안심보육센터의 적극적인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남형 스마트 축산단지 밑그림 그린다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융복합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계획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해 마련했다.

김태홍 지사와 도·시군 및 농식품부 관계자, 한돈협회, 기업, 용역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설명회는 사업 설명, 추진 상황 보고,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지역별 산재한 양돈농가를 스마트 축산단지으로 이동시켜 축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축산단지 조성 대상지는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와 당진 석문간척지이며, 스마트 축산과 분뇨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을 구축하고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북대·공주대·세민환경기술 컨소시엄을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

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등을 살피고 간척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용역을 수행 중인 전북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업회사법인 피그랜드가 축산 바이오 에너지 및 비료 생산·활용을 통한 산업 융복합 모형(모델) 등 '양돈 탄소중립 및 산업 융복합'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업단지처럼 소규모 농가들을 모아 규모를 키우고 그 안에서 도축·육가공·브랜드화·분뇨처리·방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계 미래 축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도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바탕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민의 환경

권을 모두 보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청 직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지원 성금 3,272만원 기탁

직원 일동, "신속한 피해복구와 희생자 지원에 미약하나마 도움 되길"



충북도청은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빠른 복구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3,272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소속 직원 3,465명이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마련됐다.

충북지역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31명의 인명 피해와 1,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1,481세대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오송 공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내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지원과 수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사회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충북안전 2030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아산시, 모종셋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추진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43필지, 주차장 용지 7필지 대상

아산시가 모종셋들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주차장 용지를 매각 추진한다.

아산모종셋들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지구는 국도 21호선, 아산IC 및 (가칭)풍기역 신설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온양천이 접해 있다.

또한 지구 내 조성 예정인 근린공원 및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총사업비 1549억 원, 인구 9373명(4260세대) 계획하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0일 착공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주차장 용지로 총 50필지다.

이중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는 총 43필지로 면적은 270~75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층수 4층 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다.

주차장 용지는 총 7필지로 면적은

1,130㎡~1,906㎡,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층수 6층 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 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의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 등록 기간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며 개찰일시는 8월 28일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지구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2025년 개교 예정인 (가칭)모종중학교 등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실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도시개발과 공공개발팀으로 문의하거나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온비드 누리집 입찰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아산시, 모종셋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추진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 43필지, 주차장 용지 7필지 대상

아산시가 모종셋들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주차장 용지를 매각 추진한다.

아산모종셋들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지구는 국도 21호선, 아산IC 및 (가칭)풍기역 신설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온양천이 접해 있다.

또한 지구 내 조성 예정인 근린공원 및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총사업비 1549억 원, 인구 9373명(4260세대) 계획하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0일 착공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주차장 용지로 총 50필지다.

이중 단독주택(점포겸용) 용지는 총 43필지로 면적은 270~756㎡,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층수 4층 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다.

주차장 용지는 총 7필지로 면적은

1,130㎡~1,906㎡,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층수 6층 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 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의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입찰 등록 기간은 8월 16일부터 25일까지며 개찰일시는 8월 28일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지구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2025년 개교 예정인 (가칭)모종중학교 등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실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도시개발과 공공개발팀으로 문의하거나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온비드 누리집 입찰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지속가능한 안심 일자리를 위한 실무협력단 운영

'안심 일자리-잇다' 회의 개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발굴 방안 논의

천안시는 지속가능한 안심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무협력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일자리 실무협력단은 천안시 일자리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청년담당관, 기업지원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등 행정부서를 비롯해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천안 직장맘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기업인협의회 등의 협력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안심 일자리-잇다' 회의는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일자리 실무협력단은 여성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간 업무 공유와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약자가 사회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의미로, 천안시가 실질적인 성평등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이종수 미술관'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 확산

내달 초까지 10만 명 서명 목표, 간담회·학술대회도 동시 추진

대전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가 이종수 선생의 인생과 작품을 기리기 위한 미술관 건립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출신의 세계적인 도예가로 여덟 차례 국전 입선, 대한민국 보관(寶冠)문화훈장 및 시민대상을 추서한 이종수 선생은 '불의 예술로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한 작가이다.

또한, 대한민국 3대 도예자인 대전·계룡산 인근의 '철화분청사기'를 계승·발전시켜 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겨울열매 ▲마음의 향 ▲잔설의 여운 등이 있는데, 올해 3월 유족의 뜻에 따라 작품 2,500여 점

을 기증하기로 대전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타당성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과 작품 목록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관 설립 사전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국내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선생의 미술사적 업적 ▲미술관의 지속성과 확장성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의 요구 항목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1차 평가 결과는 9월 초에 발표한다.

시는 그동안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평가에 충실히 대응하는 한편 ▲0시 축제

현장 ▲원도심 지하상가 ▲미술관 및 공연장 ▲자치구청 등에서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해 왔다. 9월 초까지 시민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대학과 유관기관까지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함께 원로 미술인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를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 개최하여 이종수 선생의 미술사적 업적과 작품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이종수 미술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

요하다"라며 "시민의 염원을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이종수 미술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원호/기자



청주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성안동', 구도심에서 굿도심으로 첫 발

(재)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상당구 성안동에 집중적, 장기적, 체계적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 위촉식을 18일 청주시아동복지관에서 진행했다.

추진단은 사업지역인 성안동을 중심으로 공공·민간·학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방향 모색 및 추진계획 검토·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남미옥 상임이사는 "추진단과 함께 사업 방향 설정, 민관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청주시(사업명 : 사회보

장 특별지원구역 '굿! 도심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2023년 청주복지재단이 거점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4년 지원 사업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사회서비스 기반 마련 등 주민참여형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고양시, 성사혁신지구 무량판구조 점검...안전 이상무(無)

고양특례시는 8월 16일에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고양성사 혁신지구 건설현장에서 건축·구조·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구조, 품질 관리, 시공 분야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결과 성사혁신지구가 안전하게 건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가 기둥에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한다. 층 높이 감소 및 신속한 시공 등의 장점이 있어 성사혁신지구에도 적용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기법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시공이 잘못될 경우 돌림 전단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기둥 주변 슬래브 연결부에 전단 보강 등의 설계적 안전 조치와 정확한 시공이 필수적이다.

성사혁신지구 품질·안전관리 점검은 총 4단계로 진행했다. 시는 ▲1단계 구조계산서의 적정성 검토 ▲2단계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일치여부 검토 ▲3단계 구조도면 및 시공현황 일치 여부 검토 ▲4단계 시공완료 부위의 비파괴검사 및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검사했다.

시 관계자는 "5월에 이어서 실시한 이번 2차 점검은 건축물 안전과 시공 품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무량판 구조의 취약한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 철근의 간격, 배치, 콘크리트 강도 등을 정밀하게 진단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사혁신지구 건축물의 안전 관리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5월에 이어 2차 품질·안전점검 실시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도민 불안 해소

기초·골조·사용검사 전 등 모든 단계 철저한 검증 나서



전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나섰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

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한다. 전국에서 드물게 기초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한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품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도 하는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빠짐없이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시공상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부실공사 근원을 뿌리 뽑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공사 중인 35개 단지에 대해 931건을 개선 조치했다. 추가로 공동주택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22개 단지에 대해 295건을 개선 조치하는 등 총 57개 단지 1천226건을 시행했다.

박종배/기자

경남도, 여름철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철통 방역 위해 역량 집중!

동절기 이전까지 농가별 위험요인 최소화 및 초동 대응체계 재정비에 방역역량 집중



경상남도는 여름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통 방역을 위해 방역점검, 종사자 교육, 초동대응체계 재

정비 등 방역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동물방역당국은 지난 6월 12

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금농장의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요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단계별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전업규모 가금농장 34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점검에서 35농가가 117건의 방역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가축방역관이 직접 농가별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이행계획서를 받아 취약요인을 보완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방역실, 전실 설치, 발판소독 및 사육시설 출입 통제·관리,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관리, 야생 조수류 차단 울타리나 그물망 설치 미흡 등이며, 이외도 소독실시·출입 기록 관리 미흡, CCTV 고장 및 30일간 보관의무 위반 등의 사항이 방역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가금농장(35호)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2단계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정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담당자, 가금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의식 제고를 위

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긴급 살처분에 대비한 시군별 인력 및 업체 동원계획 수립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동절기마다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최소화를 목적으로 여름철에도 방역점검, 방역교육과 같이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차단방역의 가장 핵심은 가금농장 스스로 실천하는 책임방역에 있으므로 취약요인이 확인된 가금농장에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출입차량 출입 통제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0년 이후 2012~2013년, 2019년 단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간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는 2021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동절기의 경우 3건이 발생해 31만 6천 수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약 25억(추정)의 재정이 소요됐다.

장재현/기자

강릉시, 빈틈없는 국가안보위한 전시대비 '2023 을지연습' 실시

21일부터 24일까지 전시전환절차연습, 실제훈련 등 진행

강릉시는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전시전환절차 및 전시임무수행 연습을 통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1968년부터 실시해온 을지연습은 행정기관 및 군, 경찰 등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북한의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비상상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생활안정,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시는 지난 16일 위기관리연습을 위한 '강릉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여 국지도발 대비 상황조치 훈련으로 실시했으며, 21일 새벽 전 직원의 비상소집 응소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기대응 훈련에 나선다.

아울러 24일까지 전쟁 발발에 따른 행정전환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

시전환절차연습, 전시임무수행훈련, 실제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다중이용시설(홈플러스, CGV) 대피훈련 ▲강릉시 청사 대피훈련 ▲강릉소방서, 강릉시청, 터미널 오거리, 문화원 일대에 차량통제 및 비상차량 길터주기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습 시작일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완벽한 임무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Refresh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대전경제 미래전략의 키(KEY)는 전략산업, 인재 육성, 벤처투자

대전시와 산업계, 2023 대전경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열린 토론 펠쳐

대전시는 18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대강당에서 대전경제단체, 공무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전경제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및 대전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의 대전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 산업 현황에 따른 맞춤형 미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백승연 과장은 대전 고용지표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최근 안정화되는 물가상승률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 생산과 수출지표의 감소세가 우려된다면서 국내 경기는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경제교육센터장은 대전시는 지난해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을 4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설정하여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지만 노후산업 단 대개조 및 기존 지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산업연구원 김명수 선임연구원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의 과제로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재구축, 4대 전략산업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ICT 관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등)와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지역 전문가 및 다양한 기업인들과 함께 대전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의를 이어갔다.

대전시 송원강 은행실추진단장은 대전시가 2024년까지 벤처창업 공공투자 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주)를 설립하고 2026년까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 은행을 설립하여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물론, 자금 회수시장 활성화와 재투자를 통한 산업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김경화 대외협력 부장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창업지원 공간 조성, 연구, 산업, 주거, 문화 등이 함께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물론 특구 내 기관과 기업 등과 소통을 확대해 K-켄달 스케어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인텍플러스 이상윤 대표는 세종이나 타 지역이 비해 대전은 정부 출연연, 대학,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기업간 상호 기술 이전과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클린룸 같은 공동 연구소 구축이 필요하며, 기업 규제 완화와 지원정책 확대를 통해 나노·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바이오오케스트라 김영길 부사장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니즈를 쉽게 파악하고 국내 기업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기초연구 공공실험실 확대와 임상 및 생산 전문 인재 육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기업가인 버터플라이 임팩트(주) 남태욱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대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의 강소기업과 그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소개해 지역 일자리를 홍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며,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송두석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오늘 포럼은 불안한 국제경제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래로의 해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역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에 뿌리내린 다양한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라며 "전통산업과 전략산업간 융합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제시된 의견인 투자와 벤처창업 촉진 기반 등 마련하여 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대덕특구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해결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확보에 팔걸이 붙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간담회 개최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도 방문, 투자펀드 설명회, 사업별 컨설팅 진행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와 8월 17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와 타 지자체의 추진 동향 및 강원특별자치도 적용 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펀드 후보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1부,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설명회에는 도 실국장 및 각 시군 부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경제·산업·관광 분야 사업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부 컨설팅에는 분야별 사업 및 도와 시군이 신청한 사업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사업별 컨설팅이 진행됐다. 한편, 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민간투

자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루 갖춘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최종 선정될 때까지 지역개발 사업, 복합 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완섭 차관은 "정부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인구소멸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도입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도 적극적으로 펀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 펀드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 펀드 제도를 활용하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도가 발굴한 프로젝트가 투자펀드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충북도 산림바이오센터, MOU로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확보 나서

호서대학교 한국에센셜오일소재연구소와 MOU 체결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이하 산림바이오센터)는 17일 산림바이오센터에서 호서대학교 한국에센셜오일소재연구소와 MOU를 체결했다.

산림바이오센터는 작년 3월 24일 개칭한 이후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2개의 바이오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MOU를 체결한 호서대학교 한국에센셜오일소재연구소는 이환명 교수가 국내 자생하는 식물을 기반으로 에센셜오일 개발과 연구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내 소재한 기관이다.

이번 MOU를 통해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와 호서대학교 한국에센셜오일소재연구소는 에센셜오일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자생하는 산림생명자원의 증식과 산업화를 위해 서로 원료물질 발굴, 재배 표준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바이오소재 원료 식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자생하는 식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어메니티장흥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인공지능을 내 손으로' 체험형 인공지능 캠프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은 초등 융합영재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6일(화)부터 17일(목)까지 안동대학교 SW융합교육원에서 2023학년도 '인공지능을 내 손으로'라는 주제로 체험형 인공지능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영재 캠프는 안동대 SW융합교육원에서 허스키렌즈를 이용한 물체추적 및 물체 인식, 네오팩셀을 활용한 경찰차 만들기, 스마트충돌방지 림비트카 만들기, 허스키렌즈를 이용한 얼굴 인식 차단기 만들기 등 AI 이해를 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이○○(영양초, 6학년) 학생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고, 직접 내 손으로 제작해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2023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지난 16~17까지 체험형 인공지능 영재 캠프 실시
김유희 교육장, "영재교육원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미래의 도전 영역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로 성장하길"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으며, 또 김○○(입암초, 5학년) 학생은 앞으로 AI/SW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재해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멋진 로봇 만들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영재교육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미래의 도전 영역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며 창의성을 길러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금상 수상

영일중학교 (영일윈드오케스트라) 중등부 금상 수상

영일중학교(교장 정경일) 관악부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양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문예술법인 다별문화가 주관하는 지난 14일(월) ~ 8월 19일(토)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영예의 중등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부문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교부문 대상으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70여개 연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 합주경연대회가 되었다.

이날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데 열정을 다해 지도해 온,이원각 지도교사는 "이번 입상에는 정경일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비롯한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이런 결과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방학중에도 연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영일중 관악부는 2000년 4월 창단 후,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전국초중고관악합주경연대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천예술제 등 각종 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금상 등을 수차례 수상했고, 경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과 2021, 2022 어울림 1000인 음악제에 출연하며 연주를 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하는 각종 공연과 요양원 방문 공연 등을 통해 지역민과 소외계층에게 음악을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음악을 통한 봉사를 교육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입상이 회복됨에 따라 학생들이 더 큰 보람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윤태용/기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경북교육청,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임종식 교육감, "박람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경북교육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도록 힘썼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과 지역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대구·경북의 명품관광, 축제·산업·교육·행정 등의 사업과 정책의 홍보를 위해 개최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분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성과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하는 경북교육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특히 3년 연속 취업을 전국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승 등을 달성한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직업교육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외 2교의 학생들은 전공분야에서 배운 다양한 내용을 직접 시연하고, 지역민과 함께 직업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외,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캐리커 '굿자비(Good job)'를 활용한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에게 직업교육을 소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경북교육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썼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본질을 탐하다

경북수업나눔축제, 학교급 통합 운영으로 미래교육 수업역량 강화
임종식 교육감, "경북수업나눔축제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본질을 고민하고 수업 혁신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바래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본질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2023학년도 경북수업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초·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는 '수업 나눔 축제'는 교육활동 연계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학교급별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유·초·중등이 함께 진행했다.

사전 신청자 700여 명은 이날 행사 현장에서 초청 강연, 교사·교과별 수업나눔, 수업나눔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꿀맛 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정혜승 교수의 '교실을 변화시키는 핵심

질문의 힘'이라는 초청 강의를 시작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북 및 전국 교사의 수업 시연과 수업 사례 나눔이 교학관, 인재관, 본관 21개 강의실에서 내실있게 진행됐다.

오후에는 유·초·중등학교가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 교과별 학습자 주도성 함양 교수·학습 방안, AI활용 교육, 환경·생태교육, 경제금융교육, 독서교육, 학급 경영, 수업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주제의 수업 나눔 부스를 운영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부터 통합 개최되는 경북수업나눔축제를 통해 학교급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고 수업 혁신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2023 경상북도 북부지구 교육장 협의회' 개최

이순호 북부지구 교육장, "협의회 개최를 통해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 체제로 경북 교육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목), 안동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안동을 비롯한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상북도 북부지구 교육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2023년 안동교육 현황과 상반기 교육 실적 소개를 시작으로,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지원 사례 공유 및 정보 교환 순으로 이루어졌다.

협의회 후에는 안동의 대표 문화명소인 월영공원과 안동민속촌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지역에 머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교육지원청 이순호 교육장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서 경북교육의 역점 과제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의 장이 되는 북부지구 교육장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 체제로 경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대구 달서구, 청소년 수련활동 캠프「미디어업캠프」성료

대구 달서구는 지난 13일부터 15일 까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미디어 과의존 예방 수련활동인「미디어업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해 스스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미디어 없이 떠나는 캠프”『미디어업 캠프』는 2022년 달서구청청소년정책연구대회에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달서구 거주 청소년 중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싶은 12~16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습관 개선을 돕고 긍정적 정서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들은 2박 3일 캠프기간 동안 미디어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활동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포함한 집단상담과 신체활동, 공동체프로그램, 염색지 티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캠프 종료 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 지원과 부모교육을 통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청소년들이 미디어 과의존 문제점과 위험성 인식, 즐거운 인터넷·스마트 폰 사용 도와, 바른 성장과 꿈 펼치도록 지속 관심 기울이겠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미디어 사용을 예방하는 본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

디어 과의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스마트폰을 즐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 읍면 지사협, 2023년 2차 네트워크 회의 개최

2분기 추진사업 공유 및 하반기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논의



영덕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대표 고수호)는 지난 17일, 영덕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읍·면 민간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덕군청 권순학 주민복지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신임 강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수진 민간위원장 위촉장 전달, 2023년 2분기 읍·면별 추진사업 및 활동 내용 공유, 제2기 영덕군 마을복지계획전문가 양성과정 참가 안내, 2023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읍·면별 추진사업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부식 및 학원비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불 빨래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강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2년 '알뜰데이 바자회' 수익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가구에 '행복하우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 남정면 협의체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봄나들이와 어버이날 캐네이션 및 주전부리 세트 전달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달산면을 비롯한 6개 협의체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욕구가 높은 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이희원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해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읍·면 협의체 위원들께서 봉사라는 이름의 땀방울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고 있다”며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다.

장문화/기자

중국 숙천시 대표단 청송군 방문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도 우호교류와 상호 방문으로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좋은 의견 교환으로 상호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해

청송군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 숙천시 대표단(중공숙천시위원회 서기 진중위 외 10명)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청송군을 방문했다.

숙천시 대표단은 양 도시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송을 찾았으며, 방문 기간 중 농업기술 향상 및 미래농업 모델 개발을 위해 선도 사과농가, 사과유통시설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 도시의 공동 관심사인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호이해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향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공숙천시위원회 진중위(陈忠伟) 서기는 “청송군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양 도시가 지속적으로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먼 길을 찾아 오신 숙천시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호교류와 상호 방문으로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좋은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청송군과 숙천시는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공무원 교환 연수, 학생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숙천시는 중국 강소성 북부에 위치한 인구 600만여 명의 도시에 최근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농업부분에서도 특색농업 산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농업을 활발히 육성 중이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피서철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

남해군은 지난 17일, 여름 피서철을 맞아 남해전통시장에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 남해시장 상인회, 남해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참여했고, 남해전통 시장 내 MG미술포자마을금고가 주관하는 '커피 1,000잔 무료 나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남해군은 시장 상인 및 방문객, 커피 나눔행사 고객들에게 물가안정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물가안정에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며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한편, 남해군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하여 물가안정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매주 2회 남해군 해수욕장 5개소 및 주변관광지 개인 서비스업소를 방문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아지는 만큼 다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준/기자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 관련 확고한 리더십 돋보여

지난 17일, 시정 최우선은 공익과 시민행복, 지역사회 발전임을 밝히는 기자회견 열어 강영석 시장, “통합신청사 신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관련 유언비어와 왜곡된 주장은 적당히 사과타협은 없다.적법절차에 따라 지속 추진하며, 과정상 대화 창구는 열어두겠다.”말해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17일(목) 14시, 브리핑센터에서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확고한 의지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통합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가칭)행복상주마을기 범시민연합에서 주민소환을 추진

하고 있어, 시민 갈등의 해소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고,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범시민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반은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 절차적 하자자 없음이 밝혀졌으며, 문화예술

회관 건립 부지 이전이 법을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시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대 시장들도 노력해왔던 상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며, 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절차적으로 중앙정부, 상급단체,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범시민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통합신청사 신축,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왜곡,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사과하고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구미시 한국 전통예술, 세계 객가박람회 울려 퍼져...

대만 도원시에서 개최하는 2023 세계 객가박람회 공연

구미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해외 자매도시 대만 도원시에서 개최하는「2023 세계 객가박람회」에 구미시 정부 대표단 및 초청 공연 예술단을 파견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66일간 '내일을 향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시티의 특징을 살린 세계 각지의 다양한 객가(한족의 일파로, 원래는 황하북부에 거주하였으나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거주민들에게 불인명칭) 음악과 문화, 공예, 음식 및 복장 등을 현지 문화와 융합해 선보이는 축제이다.

구미시 대표 예술단으로 참여한 한두레마당 예술단은 40여 명의 전통연희 전문 예술인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정 예술 단체로서, 지역 전통연희의 연구, 교류, 보급에 이바지하며 국내외 2,300여회의 활발한 공연 활동을 통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단에는 무용 농악 보존회원 10명이 함께 출연해, 총 3회의 공연 동안 구미시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려 현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유경숙 경제산업국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박람회에 구미시



예술단과 대표단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양 도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구미시는 11개국 15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했으며, 도원시

와는 1989년 구미시 첫 해외자매도시인 중리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 그동안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동현/기자

'보통의 가족',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 공식 초청! 허진호 감독-설경구-장동건-김희애-수현 참석 확정!



영화 '보통의 가족'이 제 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갈라 프레젠테이션 (Gala Presentations) 섹션에 공식 초청된 가운데,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일정과 함께 허진호 감독,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현의 토론토국제영화제 참석을 확정했다. [감독: 허진호 감독 | 출연: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현] '보통의 가족'은 서로 다른 신념의 두

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위험한 관계'(2012), '헌트'(2022) 등 유수의 한국 영화들이 초청된 바 있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은 대중들에게 대상으로 특별 게스트가 참석하는 상영회이자,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최고의 섹션으로 '보통의 가족'이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허진호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영화 '위험한 관계' 이후 토론토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또 한 번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월 14일(목)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기준) 전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1차 프리미어 상영은 로이 톰슨 홀(Roy Thomson Hall)에서 진행된다. 로이 톰슨 홀은 토론토국제영화제의 메인 상영관이자 최대 규모의 극장으로 '보통의 가족'을 향한 전세계 영화인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입증한다. 여기에, 허진호 감독과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현이 레드카펫과 무대인사, Q&A 행사에 참석해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9월 15일(금) 오후 4시(현지 시각 기준)에는 TIFF 벨 라이트박스 시네마 2(TIFF Bell Lightbox Cinema 2)에서 2차 프리미어 상영을 진행,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허진호 감독의 연출력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배우들의 진가를 선보이며 영화제에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 초청과 프리미어 상영 일정 확정 소식을 전하며 글로벌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보통의 가족'은 오는 9월 14일(현지 시각 기준) 토론토국제영화제를 통해 전세계 최초 공개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반짝이는 워터멜론' 려운-최현욱-설인아-신은수, 가장 뜨거웠던 인생의 한 페이지 그린다! 대본리딩 현장 공개!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대본리딩을 시작으로 찬란했던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한다. 오는 10월 2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극본 진수완, 연출 손정현, 유범상,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팬엔터테인먼트)에서 배우들의 '반짝이는' 연기 호흡이 돋보였던 대본리딩 현장 소식으로 첫 페이지를 장식한 것.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코다(CODA, 청각 장애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청인 자녀) 소년인 이상한 악기점을 통해 낯선 공간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수상쩍은 청춘들과 함께 밴드 '워터멜론 슈가'를 결성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청춘 드라마다. 여러 작품에서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우 려운, 최현욱, 설인아, 신은수가 각각각색 사연을 품은 청춘들로 만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 순간을 그려낼 예정이다. 또한 최원영, 서영희, 천호진, 정상훈 등 깊은 관록을 가진 배우들도 합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완벽한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진수완 작가와 손정현, 유범상 감독을 비롯해 작품을 함께 만들어갈 배우들이 총출동해 호흡을 맞춰 나갔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가 상처 없이 다치는 거 없이 촬영 잘 하겠다"는 손정현 감독의 든든한 포부에서 이어 천호진은 "여러분들 열심히 노시는 데 방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유쾌한 인사말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대본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저마다의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하며 현장장을 가득 채웠다. 먼저 려운은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코다 소년은 열악한 환경을 받아 탄탄한 발성과 발음으로 극 중 세상과 가족을 이어주는 캐릭터의 특색을 표현했다. 특히 대사와 함께 간단한 수어를 하고 기타 연주를 묘사하는 등 리딩 내내 온 연기도 잊지 않는 열정을 발휘했다. 유쾌한 열혈 사나이 이찬 역의 최현욱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손짓과 능청스러운 말투로 명랑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캐릭터의 매력을 배가시켰다. 첫사랑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당찬 목소리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설렘을 풀어냈다. 모두가 사랑했던 만인의 뮤즈 세경 역의 설인아는 차분한 톤을 유지하며 캐릭터가 가진 우아한 분위기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극 중 자신을 짝사랑하는 옆 학교 학생 이찬 역의 최현



욱과는 빈틈없는 티키타카로 두 청춘의 첫사랑 사수기를 기대케 만들었다. 차갑고 도도한 얼음공주이자 선천적 청각 장애인 청아 역의 신은수는 캐릭터에 이입한 채 단호한 눈빛과 짧은 의사 표현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이어갔다. 신은수의 서늘한 표정과 딱딱한 말투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청아 캐릭터의 내면 속 상처를 짐작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은결(려운 분)의 아파와 엄마 역으로 분한 최원영과 서영희, 악기점 할아버지 역의 천호진, 마스터 역의 정상훈은 진한 연기 내공을 발휘하며 극의 깊이를 더해갔다. 최만식/기자

스테이씨, 스윗과 함께 즐긴 '애프터 파티 라이브'...19일 무료 게릴라 공연 예고

그룹 스테이씨(STAYC)가 다양한 토크와 게임으로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17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브 애프터파티를 열고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미니앨범 'TEENFRESH (틴프레시)'로 컴백한 스테이씨는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 뒤 "가든 스테이지에서 쇼케이스를 한 게 너무 꿈 같다. 설레고 즐거웠다. 그리고 'Bubble' (버

블)'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한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아는 형님' 예고편과 찍었던 콘텐츠 예고편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긴장하셔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테이씨는 'TEENFRESH' 앨범 토크로 순서를 이어갔다. 스테이씨는 타이틀곡 'Bubble' 녹음 당시 에피소드부터 각종 철렁지를 소개했고, 수록곡 'Not Like You (낫 라이크 유)' 'I Wanna Do (아이 워너 두)' 'Be

Mine (비 마인)' 등에 얽힌 에피소드도 공개했고, 팬들과 함께 다양한 버전으로 발매된 앨범을 연박싱하며 시간을 보냈다. 라이브 댓글을 읽으며 팬들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스테이씨는 랜덤 공방기 미션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였다. 다양한 코너로 팬들과 소통을 한 스테이씨는 "애프터 파티를 통해 더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게임도 너무 재미있었고, 앨범 비하인드 많이 들려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며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게릴라 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스테이씨는 'Bubble'로 대중들을 만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만식/기자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구, 공연도 즐기고 수제 맥주도 맛보고!... '성남비어나잇' 축제 개최

수제 맥주 브루어리 및 호프거리 상점가, 다양한 맥주·먹거리 판매

신나는 음악과 맛있는 수제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남 비어나잇' 축제가 8월 18일(금)과 19일(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성남동 호프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플러그인사운드가 주최·주관하고 울산 중구와 울산시,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도심 속 바캉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고릴라브루잉 △다 이노브루잉 △화수브루어리 △낭만브로이 △성민도가 등 유명 수제 맥주 브루어리와 막걸리 양조장이 참여해 특색 있는 수제 맥주와 막걸리를 선보인다.

또한 호프거리 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 점포의 대표 메뉴를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더불어 특별한 무대 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개막식은 축제 첫날인 18일 오후 6시 성남동 호프거리 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이어서 △스낵쇼 공연 △성악 앙상블

△성영주·오앤과 함께하는 공연 △이제규&박철현의 스탠드업 코미디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이틀날인 19일에는 오후 6시부터 △프로젝트 와이브로·노모밴드·룬디마틴의 밴드 공연 △팝재즈 공연 △DJ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건배사 대회 등 축제의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낭만브로이 지하 1층에서는 △1일 DJ 체험 △나만의 맥주 하이볼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등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운영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흥겨운 공연, 시원한 맥주와 함께 여름밤 도심 속에서 특별한 휴가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를 성남동 호프거리 부활의 마중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진/기자



서울패션위크, 30개 디자이너쇼 현장관람 접수시작...큐알 초대장 1,000장 쏜다

8월 18일~25일 국내 최대 패션 축제에 일반 관람객 접수, 추첨 통해 8월 31일 티켓 발송

국내 최대 K 패션 축제인 '서울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서울패션위크 무대를 책임질 30개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쇼 관람을 원하는 일반 참가자 신청과 산업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현장 세미나 등록을 8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패션기업 95개의 컬렉션을 할인된 금액으로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트레이드쇼'도 9월 4일까지 사전 입장등록을 받는다.

연 2회 개최하는 '서울패션위크'는 매년 3월에는 가을, 겨울 패션트렌드를 선보이고, 9월에는 다음 해 봄, 여름 패션트렌드를 소개한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S/S 시즌의 컬렉션을 공개한다.

먼저, 30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를 누구나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참석자 1천 명을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8월 31일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큐알(QR)티켓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패션위크'패션쇼에는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컬렉션인 '서울컬렉션(Seoul Collection, SC)' 22개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 컬렉션인 '제너레이션 넥스트(Generation Next, GN)' 8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기업 브랜드 패션쇼(1개)는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K-패션축제의 장'인만큼 패션

산업의 트렌드와 판매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진행된다. 서울패션위크 기간동안 ▲해외 상표 등록 ▲미국 패션트렌드 ▲한국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총 3회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8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세미나별 150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9월 7일에는 ▲수출 초보를 위한 무역 실무 세미나, ▲미국 패션 트렌드와 성공적인 온라인 판매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9월 8일에는 '서울패션허브 배움뜰'과 연계하여 한국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서울패션위크 4일차인 9월 9일에는 이번 트레이드쇼에 참여한 국내 중소 패션기업 95개사의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9월 4일까지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트레이드쇼 현장에 입장하여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와 바이어가 만나는 자리이면서 '뷰티패션도시, 서울'의 시민 여러분께서 패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패션산업의 저변 확대와 패션위크의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관악구, 신림역 상권 회복 지원에 총력!

'신림역 상권 회복 특별 대책'마련으로 신림역 상권의 활력 도모



관악구는 최근 신림역 흥기 난동 사건 이후 매출 하락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역 상권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신림역 상권 회복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림역 상권 회복을 위

한 '특별상품권 발행'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확대 운영 ▲관악구 직원들의 '착한소바' 추진 등이 있다.

먼저 구는 신림역 상권 일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림역 상권 회복 특별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현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10월까지 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

'플라마켓과 릴레이 이벤트 공연'은 지난해 대비 1개월 앞당긴 8월 24일부터 추진하고, 플라마켓의 경우 운영 기간도 지난해 4일에서 올해는 8일간으로 확대한다.

별빛내린천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악별빛축제'는 지난해 1개월 운영에서 올해는 2개월(1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연장,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신림역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이벤트'를 실시해 주민들이 상권을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함

께 신사리 주차할인 쿠폰 사업, 순대타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10월 낙성대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2023 관악강감찬축제'의 일환으로 신림역 주변 별빛내린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민 참여형 버스 '관악 퍼레이드 21' ▲남창동 줄타기 공연 ▲관악구 소재의 병원과 함께하는 '별의별 건강비법' 등 재미난 볼거리로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이끌어, 신림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관악구청 직원들도 상권 회복을 위해 실시일반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은 식사 시간 등을 이용해 신림역 상권 내 식당을 대상으로 '착한소바'를 추진, 신림역 상권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돕고 있다.

박준희 구정장은 "신림역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구에서도 상인과 주민이 모두 함께 안심하고 웃을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GM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